



◆ [Focus]

- (희토류) 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주요 내용

◆ [What's News]

- (소매판매) 상무부, 물가 상승에도 10월 소매판매율 상승 발표
- (반도체) 중국산 반도체 제품 구매 시 연방예산 사용금지 논의
- (무역통상) 미·일, 방콕 APEC 장관급 무역 회담 진행
- (무역분쟁) 미국-EU, IRA 전기차 보조금 논란에 TTC 앞두고 무역 분쟁 계속
- (친환경)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두고 국가 간 견해 차이 확인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1. 《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》 주요 내용

가. 법안 개요

- 美 상원에 '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'* 계류 중

* REEShore Act :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

- 일명 '리쇼어 법안'(REEShore Act)은 공화당 톰 코튼(Tom Cotton)과 민주당 마크 켈리(Mark Kelly) 상원의원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(1.14)
 - 법 취지는 △희토류 공급망 혼란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, △국내 생산 활성화, △대중 희토류 의존도 완화 등을 목적

- 개요는 △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확보, △원산지 정보 공개, △첨단 무기 체계에서 中 희토류 배제, △중국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등

-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신설

- 국방부와 내무부가 '25년까지 희토류 전략 비축 물자 확보
- * 군대, 국방산업, 기술 섹터 및 핵심 인프라 시설 등이 최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

○ 원산지 공개 의무화

- 국방 계약업자(defense contractor)가 국방부 납품에 사용된 희토류 자석류(rare-earth magnets) 원산지를 추적 공개하도록 의무화

○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제한

- '26년까지 안보 민감 국방 체계에 중국산 희토류 금속 사용 금지

○ 중국의 희토류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

- 美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, 의회 보고, 관세 부과 등 검토

□ 이번 의회(117대)에서 상임위(에너지 자원위 등) 법안심의 통과 실패

- 지난 6.13에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자 법안(companion bill)이 발의됐으나, 상원에서와 같이 상임위 통과에 실패

* (공화) 피츠패트릭(Brian Fitzpatrick) / (민주) 고트하이머(Josh Gottheimer) 의원 공동 발의

-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, 차기 의회에서 입법 재론 유력

- 법안을 발의한 상·하원 의원 4명 모두 차기 의회 의원직 유지 확실. 여야 초당적 지지 속에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 크게 평가

* 캘리 상원의원 / 피츠패트릭, 코트하이머 하원 의원 모두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('20년 당선된 코튼 상원의원의 임기는 '27.1월까지)

나. 상세 법안 내용

□ (1절) 법안 호칭에 관한 사항

- 동 법안 호칭을 '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of 2022' 또는 "REEShore Act of 2022"라 함.

□ (2절) 용어 정의

○ 소관 상임위는 상원 국방위, 외교위, 금융위, 정보위 등을 일컬음.

○ 희토류 금속(Rare Earth Metal)은 다음 24개 광물*을 총칭

* beryllium, cerium, cobalt, dysprosium, erbium, europium, gadolinium, graphite, holmium, lanthanum, lithium, lutetium, manganese, neodymium, praseodymium, promethium, samarium, scandium, tantalum, terbium, thulium, tungsten, ytterbium, yttrium

□ (3절) 희토류 금속 및 유관 제품의 전략 비축물자 제도 수립

○ (보고) 입법 후 270일 내 내무부·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다음 사항 보고

- 희토류 금속 및 유관 제품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비축물자 수요

○ (조달) 의회 보고 후 3년 내 내무부 장관은 전략 수요를 위한 물량 조달

○ (검토) 내무부·국방부 장관은 최소 매년 희토류 전략 물량 수요와 재고 입출 현황을 재점검하고,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

□ (4절) 국방 계약자의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 의무화

○ (정보) 국방부 장관은 국방물자 계약자에게 희토류 원산지 공개 요구

- 해당 정보는 (1) 희토류 채굴 원산지 국가, (2) 정체 처리 국가, (3) 철강 합금 등 제련 처리 국가, (4) 자석 가공 처리 국가 등 포함

- 상기 정보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, 국방부 장관은 180일 이내 공급망 추적 시스템 수립을 계약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.

○ (보고)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·내무부와 협의, 매년 소관 상임위 보고

□ (5절) 국방 무기 체계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규제

○ (규제) 국방부 장관은 '26년 말 이후 정부가 구매하는 무기 시스템 (무기류 수출통제법으로 관리 중인)에 중국산 희토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

- 다만, 국방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*에 일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.

* (1) 중국 외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이 어려울 시 또는 (2) 국가 안보 침해 우려의 경우

□ (6절) 국방 계약자 의무 준법 감시

- (감사) 2년마다 감사원장은 모든 국방 계약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(random sampling)을 통해 계약자 의무 준수에 대한 감사
- (보고) 감사 후 30일 내 감사원장이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

□ (7절)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

- (조사) 입법 후 90일 이내 무역대표(USTR)는 상무부 장관과 협의 하여, 1974년 무역법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 착수
- (보고) 조사 착수 후 180일 이내, 무역대표는 소관 상임위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무역 구제 시행의 필요성을 평가 보고
 - 301조('74년 무역법), 232조('62년 무역확장법) 또는 기타 무역 제재 여부 및 기타 입법 행정 조치 권고 등 보고

□ (8절) 미국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최소화 노력

- (정책) 미국 우방국이 중국 등 비우방국(non-allied countries)에 대한 희토류 의존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수립
- (보고) 매년 국방부 장관은 국무부와 협의해 의회에 다음 사항 보고
 - 희토류 공급망 안보에 관한 우방국과 구체적 협의 결과, 우방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 완화 평가, 외국의 생산역량 강화 노력 평가 등

3. 현지 반응 및 전망

□ 대중 희토류 의존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경각심 고조

- '21년 미국의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수입 총액 1억 6,000만 달러 중 에서 대중 수입은 전체의 약 78%를 차지 (미국지질조사국, 2022)
-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은 건전한 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

-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유리한 '기울어진 운동장' 환경을 인지하고, 공공 투자와 정부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*

* 'China's Global Monopoly on Rare-Earth Elements'(2022.3.9., Gostavo Ferreira and Jamie Critelli)

□ 美 의회에는 희토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안 계류 중

- 에릭 스왈웰(Eric Swalwell) 하원의원은 '21.8월 'The Rare Earth Magnet Production Tax Credit Act' 법안 발의
-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에 킬로그램 당 20달러 세액 공제 허용
 - 해당 희토류 자석에 사용된 부품까지 미국 내 생산, 재활용되는 경우 세액 공제 허용을 킬로그램 당 30달러까지 확대

□ 우리나라는 일본, 미국에 이어 최대 중국 희토류 수입국 중 하나

- 전략국제연구소(CSIS) 집계에 따르면, '19년 기준 우리나라 대중 희토류 연간 수입은 약 2,522메트릭톤 (3,380만 달러)에 달함.

* 1위 일본(16,300메트릭톤) / 2위 미국(15,200메트릭톤)

- 우리나라 경우 레이저, 미사일 유도장치, 핵 원자로, 영구자석,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(Dysprosium)의 대중 수입이 최다

< 중국의 국별 희토류 수출 현황 (2019년 기준) >

| 종류 | 전체 (메트릭 톤) | 일본 | 미국 | 한국 | 네덜란드 | 이탈리아 | 기타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Cerium | 9,104.9 | 53.3% | 20.0% | 5.2% | 4.9% | 5.0% | 11.6% |
| Dysprosium | 156.4 | 58.4% | 0.1% | 32.9% | 0.0% | 0.0% | 8.7% |
| Europium | 13.3 | 11.9% | 15.1% | 0.1% | 56.6% | 0.0% | 16.4% |
| Lanthanum | 19,397.4 | 16.8% | 56.9% | 3.3% | 12.8% | 1.9% | 8.4% |
| Neodymium | 835.0 | 67.3% | 1.8% | 1.2% | 8.9% | 1.8% | 19.0% |
| Praseodymium | 71.8 | 58.9% | 20.5% | 0.42% | 2.8% | 0.0% | 17.5% |
| Terbium | 115.0 | 87.3% | 6.4% | 0.1% | 0.0% | 0.0% | 6.3% |
| Yttrium | 3,153.9 | 45.3% | 24.2% | 7.8% | 2.3% | 13.3% | 7.2% |
| 기타 | 12,704.1 | 47.6% | 12.3% | 8.1% | 10.1% | 2.8% | 19.2% |

[자료] 전략국제연구소(CSIS) 'China Power'

* 자료 : 미국 의회, CSIS China Power, 미국지질조사국 등

□ [소매판매] 상무부, 물가 상승에도 10월 소매판매율 상승 발표

- 상무부, 미국 10월 소매판매율이 전월 대비 1.3% 상승했다고 보도
 - 보고서는 9월 '허리케인 이언'의 여파로 건설 자재와 같은 소비재 매출이 늘었고, 연말 특수로 휘발유, 식품 같은 高 유동성 제품과 자동차, 가구의 소비도 증가했다고 분석
 - 전문가들은 (1) 소비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당시 정부 지원금을 저축한 점, (2) 노동시장의 강세가 임금 증가로 이어진 점을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소비 형태가 유지되는 주요인으로 분석
 - 하지만, 웰스파고 은행은 이번 소매판매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지적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소비 둔화, 노동시장 약화,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

* 자료 : CNN(11.16), 월스트리트저널(11.16),

□ [반도체] 중국산 반도체 제품 구매 시 연방예산 사용금지 논의

- 상원 내 중국 반도체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원 사용 금지 개정안을 국방수권법(NDAA)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 진행 중
 - *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주도
 - 현지 언론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품 구매에 연방 자원 사용을 금지한 '19년 NDAA의 889조를 반도체 업계로 확장 적용하는 방안으로 고려
 - * 과거 화웨이와 ZTE처럼 양쯔메모리(YMTC)와 창신메모리(CXMT)가 대상이 될 전망
 - 현지 연구소 AEI는 YMTC가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, 산업·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을 환영

* 자료 : 폴리티코(11.17)

□ (IPEF) 미·일, 방콕 APEC 장관급 무역 회담 진행

- IPEF 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무역 관련 장관급 회담이 개최(11.17)돼 현지 관심 집중
 - *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캐서린 타이 대표와 일본 경제산업성 니시무리 야스토시 대신이 주재
 - 회담 주요 의제는 (1) 향후 IPEF 회담 일정, (2)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, (3) 쇠고기 세이프가드 협정, (4) 에탄올 사용 증가를 통한 경제·환경 이점 등
 - * 지난 6월,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을 높이는 협정 서명
 - 회담 이후 USTR는 성명을 통해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에 대한 일본과 주요 무역 협력국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1.17)

□ [무역분쟁] 미국-EU, IRA 전기차 보조금 논란에 TTC 앞두고 무역 분쟁 계속

- 무역기술위원회(TTC) 회의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업계로부터 EU의 관련 입법 및 규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요청
 - T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미국-EU 간 협의가 추진되면서 동시 진행, 두 국가의 협상에 영향을 줄 예정
 -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(CCIA)는 최근 USTR에 제출한 대외무역장벽 관련 보고서에서 “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유 무역을 위협하는 보호정책을 추구하는 시기에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EU의 디지털 무역 장벽화는 실망스럽다”며 강한 불만 표출
 - 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(BSA), 글로벌데이터연합(Global Data Alliance), 정보기술산업위원회(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) 등 업계 회원사 운영을 방해하는 EU의 디지털 시장 접근 규제에 대해 공동 문제 제기 필요성 지적
 - 폴리티코는 미국철강협회(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)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 관련 미국 철강 생산자들이 EU 보다 낮은 탄소 배출을 하더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보도

* 자료 : 폴리티코(11.16)

□ [친환경]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두고 국가 간 견해 차이 확인

- 올해 유엔기후협약(COP27)은 국제적 피해 대응 관련 기금 확보 방식을 두고 국가 간 이견만 확인한 뒤 종료될 전망 (11.6~11.18)
 - COP27 참가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금 마련에 찬성했으나 재원 마련과 책임 소지를 두고 견해 차이 유지
 - 참가국들은 △피해보상을 위한 기구 마련과 △탈탄소 기술 지원에 “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 것인가”를 두고 의견 대립 중
 - 개도국과 기후변화 관련 피해국은 주요 탄소 배출국(중국, 인도)과 선진국(미국, EU)의 자발적인 피해보상과 책임 소지를 지목했으나 선진국 관련인은 COP27 이후에도 국가 간 논의 확대 강조

* 자료 : 블룸버그 (11.15)

Top Headlines

| 언론사 | 주요 보도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Wall Street Journal | FTX's Sam Bankman-Fried Cashed Out \$300 Million During Funding Spree (FTX, 펀딩 중 3억 달러 현금화 그 내막은?) |
| | https://www.wsj.com/articles/ftxs-sam-bankman-fried-cashed-out-300-million-during-funding-spree-11668799774?mod=hp_lead_pos4 |
| The Washington Post | Garland names special counsel for Trump Mar-a-Lago, 2020 election probes (미 법무부 장관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 특별검사로 잭 스미스 임명) |
| |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ational-security/2022/11/18/justice-trump-garland-special-counsel/ |
| New York Times | Live Updates: Garland Names Special Counsel for Trump Inquiries (미 법무부 장관, 트럼프 대통령 수사 담당자 임명) |
| | https://www.nytimes.com/live/2022/11/18/us/trump-garland-special-counsel |
| CNN | Elon Musk unbans several controversial Twitter accounts, but says not yet on Trump (엘론 머스크의 트위터;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금지 해제 언제쯤?) |
| | https://www.cnn.com/2022/11/18/tech/elon-musk-twitter-content-policy/index.html |
| USA Today | AG Merrick Garland appoints special counsel to oversee Trump criminal investigations (미 법무부 장관, 트럼프 대통령 수사 담당자 임명) |
| | 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politics/2022/11/18/ag-merrick-garland-trump-special-counsel/10712493002/ |

Notice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※ 다음주 화요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브리핑 휴재인 바,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11월 29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휴재안내) 11월 22일, 25일 추수감사절 휴재
- (자료발간)
 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(US22-46)
 -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(US22-45)
 - 미국 3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전망(US22-44)
 - 미국 양당 중간선거 공약 주요내용 및 선거결과 전망(US22-43)
 -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따른 경제 전망(US22-42)
 - 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(US22-41)
 -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 - 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 -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 -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 -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- (인터뷰)

| | |
|---|--|
| <p>민주당 텃밭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주지사는 바로 나!</p> <p>래리 호건 주지사 이야기</p> <p>합곡신 Covid-19 테스트키트, 한미 바이오 협력, 폐쇄 계획</p> | |
| <p>U.S. Chamber of Commerce</p> <p>미-중 글로벌 패권 분쟁</p> <p>미국의 프렌드쇼어링, 그리고 보호무역주의</p> <p>찰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이 들려주는,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-중 분쟁</p> <p>kotra</p> | |